

‘춤, 참 맹랑한 것이여~’



**故 조갑녀 5주기 추모공연
30일 온라인 비대면으로**

전통춤보존회 이끄는
정명희 선생·문학생들
살풀이·승무 등
명인 기리는 작품 선배

남원출신 '전설의 춤꾼' 故 조갑녀 5주기 추모공연이 30일 오후 7시 조갑녀 살풀이명무관에서 코로나19 방역수칙에 따라 온라인 비대면으로 펼쳐진다.

공연장은 조갑녀 선생이 머물렀던 근대한국 '금난관'을 복원한 곳으로, 고인이 생전에 입었던 춤 의상과 유품, 관련자료 등이 330여점 전시되어 있으며, 영상관에서는 사진작가 정범태, 김녕민, 권혁재, 박상운, 이한구 등이 촬영한 공연사진을 감상할 수 있고, 비디오로 강직하고 냉철했던 고집쟁이 춤꾼의 한평생을 더듬어 볼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공연 주제는 故 조갑녀 명인이 자주 되뇌던 '춤, 참 맹랑한 것이여~!'로, 조갑녀류 춤의 멋과 흥과 그리움을 담은 조갑녀 선생의 모든 것을 전수 받아 '조갑녀전통춤보존회'를 이끌고 있는 열한번째 딸 정명희 선생과 문학생들의 남원살풀이, 승무, 나비춤, 비리춤, 지전춤 등 故조갑녀 명인을 기리는 작품들을 선보인다.

조 명인은 1923년 남원에서 태어나 일곱 살 때 남원권번에 들어가 악기와 소리, 춤을 두루 익혔으며, 1931년 9살의 나이로 춘향제사 참가참가한 이후 승무와 살풀이로 여러 무대에 올랐다.

이후 '춤은 역시 조갑녀'라는 말이 오랫동안 회자되었으나, 이른 결혼 후 자취를 감춘 故조갑녀 선생은 2007년 여든을 넘긴 나이로 다시 대중들 앞에 나타나, 오랜 시간 숨겨져 있던 남원 살풀이와 승무를 집작해 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유산이라 할 수 있다.

한편 관객들은 유튜브 채널 '남원와락'을 통해 공연이 진행되는 과정을 온라인 생중계로 즐길 수 있으며, 11월 7일 6시 55분 LG헬로비전(헬로TV)를 통해 공연 전편을 TV로 감상할 수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주대학교는 천잠산을 중심으로 예술문화의 활성화를 위한 '2020 천잠 콘서트'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문화생활로 지역주민에 위로를”

전주대, 코로나19 극복 '천잠 콘서트'... 대학 음악학과가 재능기부 출연

전주대학교(이호인 총장)가 신도심 예술문화 활성화를 위한 노력에 나섰다.

28일 전주대에 따르면 천잠산을 중심으로 예술문화의 활성화를 위한 '2020 천잠 콘서트'를 개최했다.

이번 콘서트는 코로나19 장기화 영향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들과 전주대학교 교내 구성원들에게 위로의 마음을 전하기 위함이다.

전주대학교 음악학과 교수진 전원과 졸업생이 재능기부로 출연해 우리에게 익숙한 클래식, CCM, OST 등을 영상과 함께 연주하는 수준 높은 무대로 꾸며졌다.

특히 이날 행사는 사회적 거리두기 및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관객 사이 거리유지 및 마스크 착용 등을 철저히 준수해 진행됐다.

공연장 관람이 어려운 지역주민들을 위해 온라인으로 관람할 수 있도록 실황을 영상으로 제작해 전주대학교 LINC+사업단 유튜브 채널인 HATCH-TV에 업로드 할 예정이다.

이호인 총장은 “이번 음악회가 코로나로 인해 문화생활을 향유하지 못하고 있는 지역주민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대학이 지역사회와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기부문화 조성 및 재능기부를 통해 지역사회 예술문화복지 향상에 공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대학교 LINC+사업단은 신도심과 혁신도시 지역주민의 예술문화복지 향상을 위해 예술문화공연 관련 인프라 구축과 예술문화프로그램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장은성 기자

축! 전주매일 창간

315 농지연금지급01

415 농지연금지급02

0515 농지연금지급03

0615 농지연금지급04

0715 농지연금지급05

30715 농지연금지급06

30815 농지연금지급07


30915 농지연금지급08

130915 농지연금지급09

130915 농지연금지급10

www.fplove.or.kr


농지연금 신청하고~
생활자금 매월 받고~



부모님 통장으로

매월 농지연금을 지급해드리겠습니다

자식들을 위해 힘든 농사일을 계속 해오신 우리 부모님,
행복한 노후생활을 위한 농지연금으로 부모님의 근심을 덜어주세요.



농지연금이란? fb 농지은행 kf 한국농어촌공사 동진지사

소유 농지를 담보로 생활자금을 평생 동안 매월 지급받는 제도로서, 경직이나 임대료 인한 추가수익도 가능하고 부부 모두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 : 65세 이상 / 영농경력 5년 이상 농업인

농지연금 상담문의

1577-7770

변화하는 스스로의 모습, 자연에 반영

gallery숍 '공감·공유' 이순애 개인전 내달 2일부터 14일까지

오는 11월 2일~14일까지 gallery숍 전시공간 지원기획 '공감·공유' 이순애 개인전이 열린다.

이 작가에 따르면 나의 작업은 빠르게 흘러가는 생활 속 모습을 담아내고 있다. 시간과 공간의 제한 없이 변화하는 스스로의 모습을 자연, 인물, 꽃 등에 반영하며 다양한 이미지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단순화된 배경 위에 사물을 간략한 형태로 표현하고자 에스키스 기법을 사용했고, 추억을 회상하며 기억 속의 형상을 회화적 감성으로 여었다.

몇몇 작품들은 대상의 내면에 존재하는 정체성 강조를 위해 천을 오려 풀라주해 입체적인 효과를 주려했다.

또한, 부드럽고 편안한 느낌을 위해서 파스텔 톤의 색감을 사용해 서로 겹치는 흔적과 감정



을 표현하고자 했다.

이순애 작가는 한남대학교 미술교육과를 수료하고, 원광대학교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졸업했다.

현재 이 작가는 한국미술협회, 열린전, 삼산오 회원으로 전북대학교 평생교육원에 출강 중이다.

/장은성 기자

도로시와 친구들의 신나는 모험 흥미진진한 '오즈의 세계'로

3D 가족 뮤지컬 오즈의 마법사
내달 7일 김제문화예술회관서

김제문화예술회관에서는 오는 11월 7일 오후 2시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의 일환으로 3D 가족 뮤지컬 '오즈의 마법사'가 펼쳐진다.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은 지역주민에게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문화회관의 활성화를 위해 김제시와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가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후원하고 있다.

이번 공연에서는 도로시를 비롯해 북쪽 착한 마녀, 양철인간, 서쪽 마녀 위키드, 허수아비, 겁쟁이 사자 등이 등장해 펼쳐는 신나는 모험과 활약이 관객들을 흥미진진한 오즈의 세계로 초대한다.

또한 토네이도가 불어 닥친 도로시 마을에서 집과 동물들이 공중으로 솟구치는 장면, 오즈의 성문이 열리는 장면들이 3D 입체 영상을 통해 생생하게 구현되어 원작이 가지고 있는 환상적이고 신비한 느낌을 증폭시켜 어린이는 물론 어른들까지도 꿈과 환상에 빠져들게 만든다.

코로나19로 심신이 지친 시민들을 위해 공연장 거리두기 객석제, 방역 소독, 발열 체크, 자가 문진표 작성 등 생활 속 거리두기 공연장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시민 안전을 도모할 예정이다. 공연장을 출입하는 모든 관객은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미착용 시 입장이 금지된다.

관람권 예매는 11월 3일 오전 8시부터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ginje.go.kr/art)에서 구매 가능하다.

/김제=곽노태 기자

마스크 착용 '필수' 감염병 의심되면 '1339'로